

# 태극전사 환한 웃음 경기 내내 이어지길

강릉선수촌 공식 입촌식 열려  
비보이 공연으로 분위기 띄워  
30년만에 홈 올림픽 선전 다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경기일정(8일)

오전 9:05	믹스 더블(혼성2인조) 1차: 핀란드전 이기정, 정혜지
오후 8:05	믹스 더블(혼성2인조) 2차: 중국전 이기정, 정혜지
오후 8:30	남자 노멀힐 개인전 예선 최서우, 김현기

스키점프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빛낼 '태극전사'들이 7일 공식 입촌식을 하고 선전을 다짐했다.

'빙속여제' 이상화(스프루츠 투토)와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최민정(성남시청) 등을 앞세운 한국 선수단이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선수촌에서 공식 입촌식을 가졌다.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서 선수들은 입촌식을 치렀다.

취타대의 연주가 입촌식의 시작을 알렸다. 김지용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이끄는 선수단은 취타대를 따라 국기 광장을 거쳐 입촌식 광장에 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기홍 강릉선수촌장은 한복 차림으로 선수단을 맞이했다. 김 촌장의 환영사가 끝난 뒤 올림픽 오륜기가 게양되면서 입촌식 분위기가 달궈졌다. 이어 애국가 연주와 함께 태극기가 게양되자 선수들의 표정은 비장해졌다.

행사는 흥겹게 마무리됐다. 사물놀이패와 비보이 공연단의 공연이 분위기를 띄웠고, 선수단은 편곡된 '패지나 칭칭 나네'에 맞춰 둥글게 모여 어깨춤을 추며 입촌식을 즐겼다.

선수단의 단체 촬영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 함께 뛰는 자원봉사자들의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느라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특히 '꽃미남' 임효준(쇼트트랙·브라운 컵팀)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선수였다.



7일 오전 강릉 올림픽선수촌에서 열린 입촌식에서 한국 쇼트트랙 심석희(왼쪽), 스피드스케이팅 박승희(오른쪽)가 입촌공연음악에 맞춰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임효준은 "이렇게 입촌식을 치르니 정말 올림픽이 실감 나는 것 같다. 긴장이 많이 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지금 몸 상태는 100%로 가고 있는 중이다"고 언급했다.

심석희(켈러시아SM)도 자원봉사자들에 둘러싸이면서 가장 늦게 행사장을 뜬 선수 중 한 명이 됐다.

심석희는 "선수촌에서 즐겁게 보내고 있다. 후회 없이 하는 게 이번 올림픽의 목표다. 후회 없는 대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변신한 박승희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편안하게 만족하고 돌아가면 좋겠다"며 '헐피인'다운 여유를 보였다.

그는 또 "다른 종목에서 뛰게 됐는데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며 미소를 지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만형' 이승훈(30·대한항공)도 세 번째 올림픽을 웃음으로 맞이했다.

이승훈은 "재미있게 훈련 잘 하고 있다. 후배들을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이 (나를) 잘 챙겨주고 있다. 내가 키가 작아서 키 큰 애들이 잘 챙겨주는 것 같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웃겼다.

이승훈은 이어 "선배들이 이뤄왔던 것을 지키는 게 목표다. 정상자리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올림픽을 앞둔 소감을 말했다.

자신의 첫 올림픽을 안방에서 치르게 된 자이라(화성시청)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지만, 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순간에는 다른 얼굴이 됐다.

서이라는 "첫 훈련을 했을 때와 지금 큰 차이는 없는데 계속 설레는 마음이다"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뭔가 자부심도 들고 자긍심도 생긴다. 힘 빼고 할 생각이 없다. 힘이 들어가면 잘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다. 힘 빼고 편하게 올림픽을 맞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자, 첫 동계올림픽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은 지난 6일 스위스 선수의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얻게 된 남자 모굴의 김지현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0명(선수 145명, 임원 75명)의 선수단을 구성했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20개의 메달로 종합순위 4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개회식 최강 한파 없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하늘이 도와왔다.

기상청은 7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개회식 당일인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구름이 많겠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2도 사이가 될 것이다. 풍속은 초속 3~5%를 이를 고려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한파도를 강타했던 초강력 한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평년 수준의 기온 속에서 '지구촌의 스포츠 대축제'를 알리는 무대가 시작될 전망이다. 올림픽 개회식을 기준으로 평창의 평년 기온은 영하 1도, 밤 기온은 영하 6도 정도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날씨

2월 9일 오후 8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기온	영하 5~2℃ (체감온도 영하 10℃ 내외)	풍속	초속 3~5m (구름 많음)
동일 시간 평년값(1981~2010년)	기온 영하 5.2℃ (영하 10.6℃)	풍속	초속 5m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개회식장으로 연출전을 공연할

자료/기상청 연합뉴스

# "스노보드 매력 알리고 올림픽 톱 10 하겠다"

## 전남체육회 소속 김상겸·김호준 출사표



김호준

오는 9일 개막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광주와 전남 출신은 아니지만 지역대에 소속되어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다. 전남체육회 스키연맹 소속으로 올림픽에 스노보드에 출전하는 김상겸(29)과 김호준(28)이 그들이다.

오는 13일 스노보드 하이파이브 예선을 시작으로 올림픽에 나서는 김호준은 스키 샵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4살 때부터 스키를 탔고, 7살 때 처음으로 스노보드를 접했다.

1999년 제53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 하프파이프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호준은 중학교 3학년 때인 2006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등 보더로서의 재능을 보였다.

2007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고등부 1위를 시작으로 2008년 국제스키연맹 주관으로 열린 레이스와 2009년 제24회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대한민국 간판 보더로 이름을 알렸다.



김상겸

김호준은 "스노보드는 어려움이라는 매력의 연속"이라며 "기술에 한계가 없고, 도전에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희열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에서 톱 10안에 드는 게 목표다. 연습한 만큼 최대한 노력할 테니 지켜봐달라"며 다부진 포부를 드러냈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종목에 출전하는 김상겸은 지난 2017년 이탈리아 리비노에서 열린 FIS 스노보드 유로파컵 평행대회전에서 우승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평행대회전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자신만의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까지 육상을 한 김상겸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보드부가 창단되면서 종목을 전향했다. 하체가 긴 그를 유심히 관찰한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보드에 올랐다.

원심력을 이용한 회전동작이 많은 대회전 종목은 하체가 길면 쉽게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에게 우세한 종목. 하지만, 김상겸 또한 하체가 길기 때문에 좋은 기량을 낼 수 있다.

김상겸은 "스노보드가 스키 대신 타는 운동으로 인식되는 게 아쉽다"며 "회전종목을 비롯한 하이파이프 등의 알파인 종목들도 운동량도 있고 재미있는 종목이다"며 자신이 하는 운동에 대한 매력을 이번 올림픽 출전으로 알리겠다는 각오다.

그는 또 "현재 국내에 스노보드 실업팀이 없어 대학 졸업 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동을 그만 두는 후배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더 유명해져 스노보드를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상겸은 오는 22일부터 예선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8번째 출전...1천번째 金...5개 대회 金 평창 빛낼 대단한 기록들

'8번째 올림픽, 1000번째 금메달'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흥미로운 기록들이 만들어진다.

평창 올림픽 정보 제공 사이트인 '마이 인포 2018'에 따르면 스키점프의 가사이 노리아키(일본)가 이번 대회 출발대에 서면 동계올림픽 최다 출전 기록이 8회로 새로 작성된다.

가사이는 루지의 엘버트 템첵코(루지)와 함께 올림픽 7회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예정대로 이번 올림픽 경기가 마무리되면 그는 동계올림픽 최다 출전 기록의 유일한 주인공이 된다.

독일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페히슈타인은 올림픽 메달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그는 아이나르 비에른달레(노르웨이) 등 6명의 선수와 함께 4번의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번 올림픽에서도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 각기 다른 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거는 기록을 만들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한 오는 22일 46번째 생일을 앞둔 페히슈타인이 이번에도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 최고 동계올림픽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로 남게 된다.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은 밴쿠버에서 6개의 금메달과 6개의 은메달 그리고 2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가장 많은 동계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한국 선수는 여자 쇼트트랙의 전이경으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1000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탄생한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수여된 금메달은 모두 959개. 1908년과 1920년 하계 대회에서 치러진 피겨 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경기의 금메달은 제외할 수 있다. 1000번째 금메달은 오는 15일 열린 루지팀 계주에 돌아갈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